

인문대학

일본지역문화학과



인천대학교 일본지역문화학과는 1980년 일어일문학과로 출발하였다.
(1980년 10월 2일 학과 설치인가, 1981년 3월 12일 첫 입학생 40명 선발)

2023년 창의혁신을 실천하는 문제해결형 일본전문가를 육성하고자 일본지역문화학과로 학과명을 개편하였고, 이를 위하여 전공을 일본어커뮤니케이션(어학), 일본문화콘텐츠(문화), 일본지역정보융합(지역)으로 나누었다. 현재 일본지역문화학과는 일본어학, 일본어교육, 일본문학, 일본문화, 일본역사, 일본지리학 등 일본지역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 연구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일본어를 기반으로 하는 일본 관련 융복합 지식을 단계별로 습득하게 하고 문화 기획 및 제작 실습, 지역 현장 경험을 쌓게 하여 일본 지역문화 관련 분야로 진출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어 관련 학과 활동으로는 일본어작문대회, 일본어스피치대회, JLPT(일본어능력시험)특강 등이 대표적이나 한일협회의 대학생번역대회, 대사관 주관 한일교류활동(JENESYS 대학생 리포터) 추천, 문부성 장학생 선발 등 대외 진출에 필요한 지원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문화 관련 학과 활동으로는 서평대회가 대표적이나 학생들이 문제해결형 방식으로 기획 및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문화 소모임 소식지 AI, 일본 서브컬처 웹진 KOI, 일본어 애니메이션 기획과 제작을 시나리오부터 더빙까지 담당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는 SIROBAKO 등은 대학생 교내 활동 이상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 관련 활동으로는 일본지역문화학과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단기문화체험을 들 수 있다. 매학기 일본 현지에서의 조사활동으로 저학년 학생들은 한일사회를 이해하고 일본에 대한 학습 동기를 높이고 있으며, 고학년 학생들은 각 도시의 문화를 학습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직접 탐색하고 조사하는 활동을 통해 졸업논문을 작성하여 일본 혹은 국내 일본지역문화 관련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이밖에도 각 전공별 학생연구단 활동(일본연구소 연계)과 다양한 전공소모임, 한국에 오는 일본 유학생들과 국제교류 및 언어교환으로 한일친선을 도모하는 동아리 활동(Totoro) 등 전공 관련 교수학습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일본지역문화학과는 언어 기반 사회, 문화, 지역 융복합교육으로 세계화시대에 대처하는 일본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일본지역문화학과



**교육
목표**

일본어를 기반으로 일본사회, 일본문화, 일본지역에 대한 융복합 교육으로 세계화 시대에 대처하는 「일본전문가」 육성



**트랙
소개**

트랙	주임교수	소개
일본어 커뮤니케이션	이건상 신은진 나카무라유리	고급 일본어 문헌 독해와 작성, 실전 의사소통이 가능한 일본어 능력 배양
일본문화 콘텐츠	남상욱 이 석	창의적 문화콘텐츠 개발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이해 능력 배양
일본지역 정보융합	박진한 이호상 이강원	일본 지역 정보를 융복합하여 지역전문가로 실천 및 활동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진로

- **일본어커뮤니케이션**: 국내 및 일본 대학원, 관련 연구소 및 기업 언어관련 전반
- **일본문화콘텐츠**: 출판, 영화,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등의 문화콘텐츠 관련 회사 및 각종 PR회사 및 지역문화기획자
- **일본지역정보융합**: 국가 및 공공기관, 지역전문가, 시민단체, 연구소, 호텔, 항공사, 일본 기업 등



자격증

- **일본어커뮤니케이션**: 일본어능력시험(JLPT) 1급, JPT, 일본한자능력검정(漢檢) 1~5급, 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BJT) J1 등
- **일본문화콘텐츠**: 일본어능력시험(JLPT) 1급,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 등
- **일본지역정보융합**: 일본어능력시험(JLPT) 1급, 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BJT) J1 등

비교과 활동

- **일본어커뮤니케이션**: 전공번역소모임 및 교수학생지원센터 관련 프로그램(학습지원프로그램, 학습공동체, 학습법특강, 학습공모전) 등 - 한자, 일본어능력시험, 시사읽기 등
- **일본문화콘텐츠**: 일본서브컬처 연구회(코이), 일본소설 원서 강독회, 창의적 콘텐츠 제작(시로바코) 등
- **일본지역정보융합**: 일본단기문화체험, 국제교류소모임(토토로), 지역학스터디 모임(코코도코) 등


1 학년

	일본어커뮤니케이션	일본문화콘텐츠	일본지역정보융합
기초	자기설계세미나 1,2 일본어입문 1,2		
필수		일본문화콘텐츠입문	일본지역학입문
심화	일본어학의 이해 일본문자문화의 이해 기초일본어회화 1,2	일본명작감상 일본서브컬처의 이해	일본전근대사 일본현지조사실습1

2 학년

기초	아카데미일본어 1,2		
필수		일본문학비평	일본근현대사
심화	실천일본어회화 1,2	표상문화론 일본문화콘텐츠 비평 일본문화콘텐츠와 장르	일본의 지역지리 현대일본과 일본인 일본도시의 이해 현대일본사회의 이해

3 학년

필수		현대일본문화론	일본지역사회의 이해
심화	일본어학사 일본어어원의 이해 응용일본어회화 1,2	일본근현대문학 지역과 스토리텔링 일본근현대문학강독	일본지역문화조사방법론 일본지역학 특강 일본도시사 일본지역문화세미나

4 학년

심화	일본어연구방법론 일본어통번역연습	일본문화산업론 일본문화콘텐츠세미나 일본지역문화기획캡스톤디자인	일본지역문화학특강 일본현지조사실습2 일본지역학캡스톤디자인
----	----------------------	---	---------------------------------------

연계전공

전공명	인문문화예술기획 연계전공
-----	---------------

석사, 박사

대학원	학석사연계과정,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문화대학원
-----	------------------------------

취업기업
동문선배 취업기업

세종대학교, 가천대학교, 일본 와세다대학, 일본 히로시마슈도대학, 문화재청, 검찰청, 경찰청, 병무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철도공사, 국세청, 서울메트로, 인천환경공단, 매일경제신문사, 롯데면세점, 이마트, 홈플러스, CJ홈쇼핑, 한진해운, SPC, 한일맨파워, KB국민은행, 한화생명, 대우로지스틱스, 에프앤비즈, 후지제록스, 두산, 삼성전자, 호반건설, 한국덴소, 금성출판사, 대원씨아이, 대한항공, 진에어, ANA항공, 캐세이퍼시픽, 힐튼호텔, 유학원, 삼일제약, 안국약품, 한국바스프, 한일합성, 덕화스포츠

주요 진출 현황 : 워크넷

워크넷



주요진출분야



- 기업체 : 각종 기업체(무역, 해외영업, 유통, 기획, 마케팅, 관광개발, 총무, 인사, 노무법인 등), 외국계기업, 외국어 사설학원, 호텔, 여행사, 항공사,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 출판사
- 금융기관 : 은행
- 정부 및 공공기관 : 외교부 공무원, 외국대사관, 한국대사관,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일반직 공무원, 국제교류원(일본 외무성 산하), 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 학교 :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 어학원 : 일어어학원

진출직업

- 사무직 : 대외제휴협력사무원, 마케팅사무원, 무역사무원, 유학상담자, 해외홍보관, 출입국심사관, 자막제작자, 탑승수속사무원, 외교관, 은행원
- 영업/판매 : 해외영업원, 면세상품판매원
- 교육/연구 : 외국어교사, 외국어학원강사, 학습지 교사, 교재 및 교구개발자, 인문계열교수
- 작가 : 소설가, 시인, 만화스토리작가, 통역가, 번역가, 문화평론가, 칼럼니스트
- 방송/기자 : 신문기자, 방송기자, 방송연출가, 잡지기자, 아나운서, 리포터
- 여행 서비스직 : 관광통역안내원, 여행사무원, 여행안내원, 해외여행인솔자, 항공기객실승무원, 선박객실승무원, 여행상품개발자, 크루즈승무원, 호텔프런트사무원, 의료관광코디네이터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워크넷 (www.work.go.kr) → 직업진로 → 학과정보 → 일어일본



주요 진출 현황 : 기업 및 직무

호텔신라 직무소개



주요 진출 기업 및 직무 정보 안내

- 삼성채용(<https://www.samsungcareers.com/>) → 채용공고 → 관계사 선택 → 직무
- 잡코리아(<https://www.jobkorea.co.kr/>) → 커리어 → 직무 인터뷰 → 여행상품기획자(하나투어)

호텔신라 직무소개 - 영업관리(오프라인)

THE SHILLA
SEOUL

[직무소개]

매장에서 판매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면세사업의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매출 분석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직무

[직무내용]

- 오프라인 면세점(시내점 및 공항점) 브랜드/상품 매출 관리, 프로모션 기획, 인력 관리
- 브랜드/상품별 재고 운영·관리 및 수요 예측을 통해 매출을 극대화하고 재고건전화에 기여
- 고객 동향, 상품 구매 추이, 주요 정책 현장 반응 등 Market Intelligence 정보를 수집하고 유관부서와 공유
- 점 자체 마케팅/판촉활동 기획 및 실행을 통하여 매출 확대를 추진

[필요역량]

- 면세 및 유통업, 관광 산업에 대해 관심 보유
- 원만하게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 보유
- 제2외국어(영어, 중국어, 일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우대사항]

- 제2외국어 가능한 자
- 직무와 연관된 대내/외 활동 경험 보유한 자

[향후 커리어]

- 시장정보 수집 및 면세점 영업현장 프로모션 기획 경험을 통해 Travel Retail 분야를 선도하는 영업/마케팅 전문가로 성장
- 면세시장, 고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상품트렌드를 선도하는 면세MD 바이어로 성장
- 매출, 재고, 인력 관리 등 직무 경험을 토대로 조직의 경영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는 기획/관리/경영전문가로 성장

주요 진출 현황
: 기업 및 직무

하나투어 직무소개



하나투어 직무소개 - 여행상품기획자



[직무소개]

상품 속성에 따라 다른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상품화하는 핵심 업무!
골프 여행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을 찾은 후, 가격과 지역 컨디션 등의 요소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골프장과 숙소, 항공권 등을 선정합니다. 아무래도 골프를 목적으로 둔 여행상품이다 보니 상품을 만들 때 가장 우선으로 두는 요소가 바로 골프장인데 골프장의 시설이나 가격 등의 요소를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선정되면 그 외 여행에 필요한 호텔이나 항공 등을 선정해 상품으로 구성합니다. 흔히 여행사에서는 상품기획 업무를 '수배'라고 표현합니다. 여행사는 일종의 알선업입니다. 여행사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여행사 업무는 크게 영업과 수배 그리고 이 외 부가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업무로 구성되는데, 수배는 호텔, 항공권, 지역 등의 요소를 고객의 니즈에 맞는 최적의 조합으로 만드는 '상품기획'을 말합니다. 영업은 이러한 나온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많이 알리고, 상품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일과]

출근하면, 전날 퇴근 후에 이뤄진 예약에 대해 확인하고, 특이사항을 체크하는 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 후에는 주로 해외 이슈나 여행 트렌드 등을 살피는 업무로 시간을 보내는 편입니다. 수배는 시장의 흐름과 이슈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외 동향이나 이슈에 눈이 밝아야 하거든요. 항공좌석을 확인하는 일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많은 좌석을 확보할 수 있는지, 특가 상품이 있는지 등의 사항을 체크합니다. 또 영업부에서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사내 인트라넷 등을 통해 상품이 나왔다는 것을 알립니다. 이 외에도 상품 프로모션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의 업무도 진행합니다.

[업무를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역량]

아무래도 여행사이기 때문에 '해외 경험'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 제 입사동기들만 해도 해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실제 하나투어 입사 지원을 할 때 '해외경험'을 모두 기입할 수 있는 란이 따로 있습니다. 또한, '트렌드를 파악하는 능력'과 '업무 센스'도 필요합니다. 여행도 트렌드에 민감한 업종이기에 트렌드를 놓치게 되면 고객의 선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좋은 상품을 만들기 힘든 원인이 됩니다.

주요 진출 현황
: 기업 및 직무

[희망하는 회사 후배]

센스있는 후배요! 트렌드를 빨리 캐치하고, 이를 상품에 적용하는 센스나 회사 생활에서의 센스가 있는 후배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업무적인 센스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행사는 고객들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알선업이다 보니,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발생하면 고객 예약 정보 등이 누락되는 등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며, 이때 업무적인 센스나 융통성이 부족하면 이를 수습하는 데 어렵습니다.



주요 진출 현황 : NCS

NCS 직무소개



NCS 관련 직무

- 국가직무능력표준(www.ncs.go.kr) → NCS 및 학습모듈 검색 → 분야별 검색
- 10. 영업판매 → 01. 영업 → 01. 일반·해외영업 → 01. 일반영업
-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 03. 관광·레저 → 01. 여행서비스 → 01. 여행상품개발

NCS 직무명 : 일반영업

[직무정의]

일반영업이란 이윤창출과 고객만족을 위하여 자사의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고객을 유지하는 일이다.

[능력단위]

- ① 영업 전략수립 ② 영업 고객발굴 ③ 영업 제안 ④ 영업 계약체결관리
- ⑤ 영업 계약이행관리 ⑥ 영업 성과관리 ⑦ 영업 고객불만관리
- ⑧ 영업 고객유지관리 ⑨ 영업 환경분석

NCS 직무명 : 여행상품개발

[직무정의]

여행상품개발은 고객의 여행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행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여행상품 시장조사, 여행상품 STP전략, 여행상품개발 자원관리, 여행샘플상품 구성, 여행상품 원가분석, 여행상품 상품성 검토, 여행상품 샘플투어, 여행상품 관리, 여행상품 마케팅 믹스, 여행상품 출시를 하는 일이다.

[능력단위]

- ① 여행상품 시장조사 ② 여행상품 상품화 검토 ③ 여행상품 원가분석
- ④ 여행샘플상품 구성 ⑤ 여행상품 샘플투어 ⑥ 여행상품개발 자원관리
- ⑦ 여행상품 출시 ⑧ 여행상품 관리 ⑨ 여행상품 STP전략
- ⑩ 여행상품 마케팅 믹스



취업성공 수기

일어일문학과 박○○ - 만화 편집기자

■ 합격정보

- 기업명 : 대원씨아이(주)
- 졸업년월 : 2017년 02월
- 입사년월 : 2016년 09월

■ 기본 인적사항

- 영어점수 : 790
- 평균학점 : 4.09
- 기타 외국어 : JLPT N1:169/180 JPT:890/950
- 자격증 : 운전면허2종자동 / 컴활 1급
- 취업시 연령 : 24세(만23세)
- 해외경험 : 일본 교환학생(히로시마 슈도 대학) 약 1년
(1년 동안 한국어 강사 아르바이트)

■ 취업 준비 과정

문학을 전공하고 물류학을 연계전공하면서 문과가 취업시장에서 매력적인 지원자가 되기 위해선 중고신입과 자격증 보유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풀무원샘물 인턴 3개월, 이베이코리아 계약직 8개월, 경신에서 약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재직 기간 중에도 꾸준히 물류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자소서 및 취업 준비 과정에서도 최대한 제 경험들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재직자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인맥들을 통해 해당 기업의 이슈사항과 인재상들을 확인했고, 각종 경영지표 등을 도움받아 기업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쉬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 이런 마음을 지워내기 위해서 취업스터디를 운영했습니다. G-SAT와 면접을 준비할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삼성 계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취업스터디를 통해 매일 할당량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 취업성공 원인분석

안녕하세요.

취업에 뛰어들, 혹은 취업 준비 중이신 모든 분들, 우선 힘내시라는 말 한마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동안 '스펙'에 대해 다들 열을 올리며 준비를 했는데, 스펙 준비에 앞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무엇을 기준으로 취업을 노릴 것인가?
(우선순위 설정과 미래를 그릴 수 있는가의 여부)
2. 목표로 하는 회사, 직종을 확실하게 정할 것.
3. 그 회사, 직종에 필요한 요건만을 스펙으로 쌓을 것.
4. 자신을 많이 돌아볼 것.

사실 위의 양식을 기재하면서 저 자신이 참 민망할 정도로 스펙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저것 나름 많이 한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편식이 심합니다. '일본어'에만 집중하고 있죠. 얘기하자면 길어지는데, 짧게 말씀 드리자면 '일관성 있게 좋아하는 것을 공부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바빠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부모님께서 대신 만화영화를 자주 틀어주셨고, 초5부터 일본어 독학을 시작하고, 대학에서는 점수 맞춰서 가자는 부모님의 의견에 일문과를 썼지만 본래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었기에 열심히, 즐겁게 공부했고 덕분에 전공 93학점에 전공 평균 4.3의 성적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일본어와 만화가 관련된, 막대한 꿈으로만 남을 것 같은 '만화 편집기자'라는 직종에 발을 담그게 되었습니다.

조금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0순위로 중요한 것은 '스펙 준비'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취업을 노릴 것인가?'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방향 시작하고 처음 원서를 넣었던 일본 캐릭터 관련 회사에서 단번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당시 직종을 찾는 기준이 1차는 원래부터 가고 싶던 '출판사'였지만, 현실적으로 출판사는 T.O도 적고 페이도 적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일본어 우대'이면서 가능하면 일본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해외 영업'이었습니다. 처음 취직한 회사는 누가 들어도 알만한 캐릭터 회사이지만 국내에선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지원했던 해외 영업에 배치될 줄 알았으나, 웹 블로그와 SNS를 관리하는 1인 부서에 배치되었습니다. 게다가 말이 온라인관련이지, 별 상관도 없는 이미지 및 영상 제작에 필요한 구성이나 맞춤법 교정, 영화 마케팅, 상품 제작 구성 등 별일을 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에 가득 차 입사를 했지만 첫날부터 느꼈습니다. '아, 여기 퇴사해야 될까? 어떡하지?' 사원들은 모두 친절했고, 딱히 구박을 하거나 못 잡아먹어 안달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바라는 부서가 아니다.' 그리고 '일에 구분이 없다.'였습니다. 나름 자신과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다가도 '내가 과연 1년 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이 회사, 이 부서에서 해낼까?'하는 고민 속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째 수습계약이 끝나기 직전, 회사를 나가야겠다고 결심하게 한 결정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나왔습니다.



취업성공 후기



이렇게 처음 합격된 곳에서 깨달은 것은 '적당히 최저조건만 맞춰서 들어가면 안 된다.'였습니다. 자기 자신과 일에 대해 깊이 마주하지 못한 것이죠. 그냥 '합격만 하면 돼! 취업의 지옥에서 벗어나 나면 돼! 일본어 능력만 인정받을 수 있으면 돼!'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선 무조건 취업!'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인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인가, 이상을 목표로 할 것인가, 연봉(돈)을 중요시 할 것인가'와 같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폐이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은 그에 맞는 직종에 힘쓰면 되겠지요.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으면 그 직종에 힘쓰면 됩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그 곳에서 '내 미래를 그릴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물론, 심각한 취업난과 초조함에 어디든 붙으면 감사하겠다는 마음뿐입니다. 어디든 불러주면 날아갈 준비가 되어있게 취업 준비생이지요. 하지만 그 래서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목표가 없어서는 준비도 할 수 없습니다. 학생시절에는 그저 스펙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아니에요. 우선 필요한 것은 '우선순위(꿈, 돈 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원하는 회사와 직종을 상세히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출판사 중에서 만화, 웹툰, 소설로 나누었고, 소설의 경우 일본문학, 그 중에서 가능하다면 일본 미스터리, 그리고 자신의 성향과 잘 맞는 레이블인 문학동네의 엘리시르. 이런식으로 만화나 웹툰도 노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출판사는 아니더라도 내지 작업이나 번역 등도 고려했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여 어느 직종을 노릴지 얼추 그림이 그려졌다면, 그에 필요한 자격이 준비되어 있어야겠죠. 다행스럽게도 저는 꿈이나 자격증 준비가 일관된 편이어서 기존 자격증에 더 고득점을 노리는 것과 면접 준비로 취업 준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물론 다른 자격증도 있으면 직종 범위를 넓힐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게 좋을까요? 생각보다 회사들은 자신들이 찾는 인재상에 필요한 자격만을 찾지 그 외의 능력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 하지 않습니다. 출판사에서 일본 만화 편집기자를 찾는데 영어가 그리 필요할까요? 봉사활동이 그리 필요할까요? 일본어 능력과 얼마나 만화를 많이 접해왔고 만화에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는지, 나아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도 잘 적응해나갈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즉, 알고 넓은 스펙은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은 '자신을 많이 돌아볼 것.'입니다. 사실 0순위와 크게 다를 것 없지만, 이는 취업을 준비할 때도, 취업 후에도 꾸준히 영향을 줄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흔한 자기소개보다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작은 사건에서도 내가 이 직종과 얼마나 잘 맞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을 효과적으로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아~~~주 많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 자기소개서에 활용한 자신의 과거는 면접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합격 후에도, 앞으로의 미래의 성장에

취업성공 후기



[주요평가요소]

- 직무 적합성 : 수강교과목, 자격증, 직무 관련 교육 및 경험(일경험) 등
- 조직 적합성 : 인성 및 태도, 기업 인재상 및 핵심가치 적합여부, 미래비전 등
- 직무역량이 중요시되는만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역량, 그 역량의 근거를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필수

도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도록 자기 자신과 긴 시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세요.

❖ 서류 후기 및 작성 Tip

사실 앞서 서술한 내용들이 지금의 후기 및 작성 Tip의 범주에 어느 정도 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좀 더 모집 공고를 골라내는 팁이나, 자기소개서 작성 팁에 대해 적어볼까 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4가지 내용을 숙지하시고 이제 여러분은 구직채용 사이트를 가겠죠. 간혹 구직 사이트에 올리지 않는 회사들도 있으니 관심 있는 회사는 꼭 공식 홈페이지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직 사이트에서 본인이 원하는 기준과 직종을 필터에 적용하고 꾸준히 매일매일, 다양한 사이트를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그 많은 구직 사이트 중 한곳에만 올리는 곳도 있어서 다양한 사이트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공고가 너무 자주 나오거나, 모집 기간이 긴 곳은 의심해 봅시다. 공고가 잦거나 모집기간이 길다는 것은 일단 면접은 자주 보는데, 사람을 많이 안 뽑거나, 뽑아도 사람들이 금방 그만두기 때문입니다. 제 첫 회사가 그런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쓸데없이 공고가 잦은 곳은 회사 정보를 잘 파헤쳐 보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공고가 잦다고 채용에 열성인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는 직장에 이상한 사람이 많거나 혹은 일에 체계가 없거나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그 셋 다입니다. 조심하세요.

이력서를 넣었다면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가 필요하겠지요. 일단 자기소개서는 사람마다 터득 방법이 다양한데, 저는 대체로 Youtube에서 자기소개서와 면접 관련 영상을 보거나 도서관에서 자기소개서 관련 도서를 닦치는 대로 빌려 정독 및 파악 후, 자신에게 맞게끔 적용시키며 글쓰기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어떤 성향인지, 회사가 바라는 인재상에는 어떤 점이 필요한지를 잘 버무려서 자신의 기억 저면에서 사소한 듯 은연중에 관련이 있는 사건을 하나 꼬집어내서 적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공부하시면 감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이때 임팩트 있는 문장이나 표현이 필요한데, 그 또한 자신과 회사의 성향에 맞거나, 자기소개 내용에 인용했는데 이것이 취미 내용까지 이어진다거나 하는 식으로 쪽쪽 이어지도록 쓰면 좋겠지요. 왜냐하면 면접이 자기소개서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질문이 이어질만한 내용으로 쓰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책장만 봐도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라는 구절을 사용해서 제 책장에 담긴 만화 혹은 소설과 정리된 방식을 보면 이러한 성향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식으로 자기소개서 내용을 이어나갔습니다. 참고로 저는 저 구절을 추리소설 <셜록 홈즈>에서 보았고, 취미가 미스터리 소설 읽기입니다. 그리고 영미 추리소설을 시작으로 대학에 오면서 일본 추리소설에 푹 빠졌고, 한

취업성공 후기



[주요평가요소]

- 보편적으로 기업은 2단계 면접으로 진행
 - 1차 면접 : 직무면접, 실무진 면접
 - 2차 면접 :
 - 인성면접, 임원면접
- 기업/직무에 따라 PT면접, 토론 면접, 롤플레이, 영어면접 등을 진행
- BE(경험)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경험을 토대로 꼼꼼히 검증하고 보유 역량을 판단하는 면접유형이 확대, 자신의 행동을 중심으로 구체적 과정과 성과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

신인 추리소설가를 알게 되었는데 정식 번역본이 없어 원서를 읽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논문은 그 추리소설가에 대해서입니다.

대충 이런 느낌일까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저의 예시일 뿐, 회사 인사담당자 마다, 또 글을 쓰는 여러분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급하다고 아무 스펙이나 쌓거나 아무 곳에나 이력서 넣지 말고 자신을 잘 알아보고 일관성 있는 직종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직종을 하나로 좁히지 말고 관련이 있는 다른 직종 몇 가지로 나누어서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지요. 혹은 완전히 새롭게 창업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 면접 후기 및 준비 과정

사실 면접은 딱 두 곳밖에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만, 현재 다니는 직장의 면접 후기를 적겠습니다. 서류 통과 및 1차 적성 면접 안내 연락은 서류 마감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총 몇 명의 후보자들이 왔는지는 알기 어려웠는데, 30분 단위로 후보 두 명씩 도착하여 면접을 치르는 형식이었습니다. 면접관 : 후보자 = 3 : 2였습니다. 면접 질문은 어디든 비슷하겠지만, 자기소개서를 기초로 질문이 나왔습니다. 사는 곳이 어딘지, 취미는 무엇인지, 종이책과 디지털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아하는 한국만화 및 일본만화는 무엇인지, 만화는 꾸준히 봐왔는지, 편집기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 나가고 싶은지 등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 면접 후기들에는 없었던 번역 테스트를 했습니다. 일본만화 두 페이지의 사본을 주면서 5분 안에 한국어로 해석하여 적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운이 참 좋았는지, 만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사본을 받는 순간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의 최신작이었던 거요. 면접 후 다른 후보생들과 얘기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 적지 못했더군요. 일본어를 잘 못하거나, 어감을 잘 못 살리거나 하는 등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3일 이내에 전화가 왔습니다. 2차 인성 면접을 보러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세 명의 후보자가 도착했습니다. 아마 다음 타임 면접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2차 면접은 지난 면접의 면접관 한 명을 포함하여 각 부서의 최고 담당자와 사장, 이사, 전무 등 간부진을 약 8~10명과 후보자 한 명의 형식이었습니다. 대략 20분 정도씩 진행되었습니다. 질문은 취미나 특기, 졸업 사항(바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가족 구성 및 가족들의 직업, 스트레스 해소법, 하고 있거나 좋아하는 스포츠, 지원 동기, 인생관이 무엇이며 그 인생관으로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해 나갈 것인지, 일본에서 어떤 수업을 들었느냐, 요즘 보고 있는 만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만화 <바쿠만>을 보고 만화 편집기자를 꿈꿨다는 대답에 대해 만화처럼 편집일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이었습니다.



1차 면접에서는 같이 들어온 사람의 페이스에 휘말려서 사실 잘 안됐다고 생각했는데, 제 무기는 오랫동안 당사의 작품을 접해왔고 또 지켜봐온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리니저러니 독자로서 회사와는 10년 넘는 인연이었으니까요.

그리고 2차 면접에서도 왜 타사가 아닌 당사를 지원했는가에 대해 과거 제가 했던 독자 문의에 대한 귀사의 대처가 어떻고 그래서 좋았다, 타사와 달리 꾸준히 작품을 끝까지 발간해준다는 점, 이벤트 참여를 했다는 점 등을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에 들은 이야기로는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제일 떨지 않고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해서 인상에 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연습하지 못한 질문들도 꽤 나왔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평소 자신을 얼마만큼 알고 분석했는지에 따라 생각이 못한 질문에도 바로 대답을 하면서 뒷말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아, 나는 왜 이렇게 취업이 안 될까? 나는 식종이야. 살아서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여러분의 지난날을 잘 돌아보세요. 초종고 때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친구 관계나 학업이 아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정말 큰 고민이었는 데 지나고 나면 귀여운 고민이다 싶은 것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다그치며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지금의 기본에 실컷 빠져들어 실컷 의기소침하고 나면 후련해지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리고 종종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무슨 일이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리려고 이 전공을 했다, 자괴감 들고 괴로워.'하는 분들도 많죠. 제 주변에도 실제로 많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강조했듯이, '나 자신을 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전공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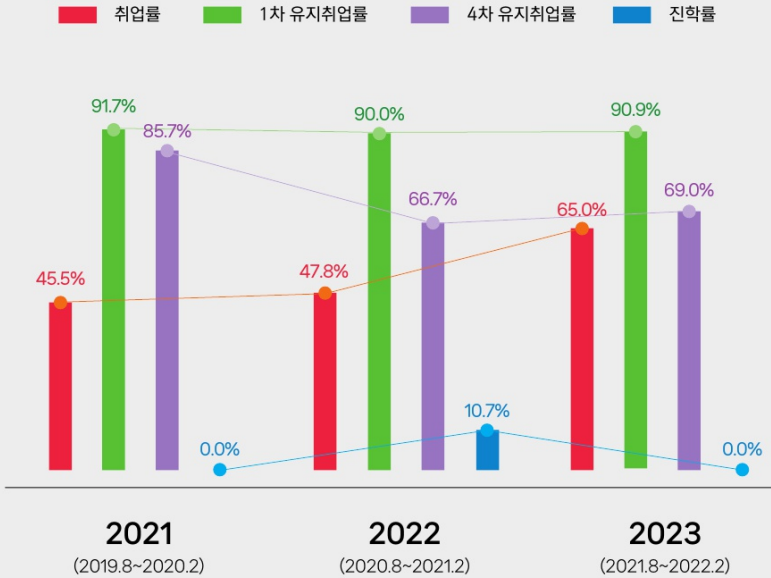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행복과 적당한 급여가 우선순위였는데, 저처럼 행복이 우선순위라면 맞지 않는 일은 버리세요. 가봤자 오래 못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100년 인생이잖아요? 더 잘 살면 120년도 무리는 아닐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직업으로 평생 먹고 살지는 조금 의심스러워요. 아마 전직을 최소 한 번은 하겠죠. 사실 제 다음 꿈은 통번역대학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업무 중에도 역자가 보낸 번역본을 교정하거나 원서 검토를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번역과도 가까운 직업입니다. 그리고 원래 편집기자라는 직업을 알기 전에는 번역가가 꿈이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겐 돈벌이가 안 된다며 단칼에 자르셨습니다. 그리고 편집기자도 단칼에 잘릴 뻔한 꿈이었는데, 막상 취직하고 직장도 나름 튼튼하고 봉급도 나쁘지 않아서 인정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취직 활동하기 전에 몇몇 교수님들로부터 대학원에 가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아서 많이 흔들렸어요. 전공 공부를 하면서 생각 보

취업성공 수기

다 자기 자신이 연구와 잘 맞다는 것과 교환학생의 경험을 잊지 못해 많이 후했거든요. 일본에서 한국어 강사를 하면서 수업 준비를 할 때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했는데, 그때의 공부나 연구하는 자세가 제 적성과 잘 맞았어요. 하지만 청년이 대학원 이후를 꿈꾸기에는 현실은 너무 불안하지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훗날 다시 학생 신분으로 돌아가 공부해서 번역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가능하면 가까운 꿈과 그 다음의 꿈도 꿈꿀 수 있는 미래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 그리고 미래까지의 선이 비뚤비뚤해도 어느 정도 직선에 가깝게 이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성향과 일관성 있게 준비해보세요. 그리고 다들 힘내세요! 저처럼 스펙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취직했으니깐요. 여러분은 더 대단한 사람이니 취직도 잘 될 거예요. 파이팅!



취업 및 진학현황



연도	졸업자	취업대상자	취업자	진학자	취업률	유지취업률		진학률
						1차	4차	
2021	34명	33명	15명	0명	45.5%	91.7%	85.7%	0.0%
2022	28명	23명	11명	3명	47.8%	90.0%	66.7%	10.7%
2023	24명	20명	13명	0명	65.0%	90.9%	69.0%	0.0%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KEDI) 12. 31 공식취업률 기준 (대학 알리미 www.academyinfo.go.kr 참조)
- 기준 : 3개년 12월 31일자 공식 취업률 기준 (2021년, 2022년, 2023년)
- 취업률 산출방식 (취업자 / 취업대상자) × 100
- 진학률 산출방식 (진학자 / 졸업자) × 100

